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노연*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 6. 17(토) ~ 7. 15(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하버포인트, SM몰 등 학생들이 갈만 한 곳과는 조금 멀어요. FB타고 10~15분 나가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파견대학이 필리핀대학마닐라라고 해서 대학교인 줄 알았는데 어학원이에요. 건물은 5층으로 되어 있고 크기는 작지도 크지도 않아요! 번화가 쪽에 위치하지 않아서 시끄럽지 않고 매우 조용해요. 운동하고 싶으면 수업 끝나고 SLEEPLESS 마트까지 조깅하거나 걷기 운동하세요! 왕복 1시간입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수업은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30까지 이루어집니다. 총 8개의 수업을 하루에 듣게 됩니다. 반이 결정되기 전에 레벨테스트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재와 반이 결정됩니다. 수업은 토익스피킹 2시간, 어휘, 읽기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책을 토대로 티쳐와 토론을 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스피킹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법 수업은 따로 없고 수업 시간에 문장을 만들다가 잘못된 문법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프리토킹을 하고 싶을 때는 진도를 빨리 빼고 프리토킹하는 시간을 갖자고 부탁을 했었어요. 교재 중에 IMPACT ISSUE랑 SEL? 이 두 책은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서 말하게 되니 스피킹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CAN YOU BELIEVE IT? 교재를 통해서 실제로 일어난 신기한 일화들에 대해서 배우고 거기에 맞춰진 IDIOMS를 배우는데 나중에 정말 유용해요! 저는 지금도 그때 배운 것들 응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숙제를 자주 내주는 티쳐들도 있어서 얇은 공책이랑 펜 준비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해서 단어장 들고 왔는데 사용할 일 없어요!

	첫 주에는 선생님 바꾸고 싶으면 사유를 말하고 바꿀 수 있어요! 바꾸고 나서 마주칠 때 민망할 거다 라고 생각하고 안 바꾸시다가 본인만 힘들어져요. 졸업하는 날까지 그 스트레스 안고 갑니다. 저도 그냥 내가 참으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하다가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첫 주에 리조트를 갔습니다. 디쉬 하나씩 주문하면 1시간 웨이팅 걸릴 거 같다고 해서 700페소 내고 뷔페 이용했습니다. 지불한 비용에 비해 먹을 음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주스값은 따로 또 지불하셔야 됩니다. (락커 비용도요!) 저는 이 날 수영을 못했는데 못하는 사람들끼리 즐길만한 액티비티 없는지 찾다가 보트 탈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지만 너무 비싸서 포기했어요. 저희가 타고 싶었던 게 3200페소 였던 걸로 기억해요.그리고 여기 리조트 수영장 무조건 수영복(비키니, 래쉬가드) 입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반팔 티, 반바지, 긴 바지, 긴 티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랑 일요일에 바비큐 파티를 했는데 이때 학생들과 놀 수도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 주 액티비티 (고아원 봉사활동) 300페소씩 냈습니다. 차별 없이 애들과 놀아주세요. 셋째 주 액티비티 (요트투어) 돈 하나도 안냈습니다. 요트는 거의 2시간만 탄 거 같네요. 요트 타고 목적지로 가는데 30분 걸려요. 그리고 도착하면 바다 중심에서 수영 가능하고 구명조끼 제공해 줍니다. 수영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영복이랑 수건 챙겨가는 게 좋을 거 같네요. 그리고 요트 안에 화장실은 한 개 밖에 없어요. 넷째 주에는 UP투어를 했는데 새벽 5시에 출발해서 밤 11시?11시30쯤에 돌아왔어요. 솔직히 마닐라에 서있는 시간보다 버스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길었던 거 같아요. 대학교에 도착해서 아침 먹고 파트너들이랑 2-3시간 동안 활동을 하는데 솔직히 재미없었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박물관 가고 몰 오브 아시아 가서 2시간 자유 시간 주어졌는데 개인적으로 저녁 해결하고 친구들이랑 사진 찍고 어학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UP 측에서 오신 교수님의 강연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떠나는 마지막 날에 MMC 페스티벌, 졸업식, 스포츠대회 이 3개의 액티비티를 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물론 1교시 수업도 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도착하고 다음 날에 방문을 열고 나가는데 너무 습하고 더워서 당황스러웠어요. 다들 교실이 춥다고 해서 긴팔 3개나 챙겼는데 한 번도 사용 안 했습니다. 거의 단기어학 생활이 끝나갈 때 쯤 교실이 추웠어요. 에어컨 바람에 약하신 분들은 외투 하나는 챙기세요. 그리고 FB기다리는 곳에서 다들 모기 많이 물렸어요. 미리 약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PUREGOLD라는 마트가면 OFF 로션 팝니다. 한국보다 싸니까 여기서 사셔도 됩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사실 떠나기 전에 IS 사건이 터졌습니다. 부모님과 주위 지인분들이 걱정 많이 하셨는데 1달 동안 정말 안전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울릉가포 거리는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그 쪽은 현지인들도 가기 꺼려하는 곳이에요. SM몰 앞은 괜찮은데 그 뒤로 너무 깊숙하게 걸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늦은 시간에는 여자분들 웬만하면 남자분들과 같이 다니세요.
숙소	학교기숙사(ㅇ)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순천향대 학생들의 방은 5층에 다 위치해 있고 와이파이는 방에서 사용 못하고 통로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시설은 보통인데 방마다 배치되어 있는 수납장이 좀 달라요. 어떤 곳은 거울 달려있고 어떤 곳은 아니고.. 그리고 저는 멀티탭이랑 어뎁터 들고 가시는 거 추천해요. 저희 콘센트 3개 중에 2개만 사용 가능했었거든요. 또, 변기 정말 자주 고장났어요.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줄이 계속 끊어져서 나중에는 저희가 그냥 수동으로 했습니다. 평일에는 10전까지 들어와서 점호도 받아야 되고 금,토 경우에는 통금 12시입니다. 점호도 12시에 해요. 그리고 외출할 때 어학원에서 준 학생증 맡기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빨래는 월,수,금 맡길 수 있고 저희가 비워있는 시간에 방 청소도 해주십니다.(월,수,금) 간혹 가다 도마뱀 들어오는데 무서워하지 마세요! 도마뱀이 벌레도 먹어주고 괜찮아요!

식사	학교식당 (ㅇ) 외부식당 ( ) 기타 (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다 한식 위주입니다. 아침은 일주일에 3-4번은 식빵에 과일, 샐러드, 쌀죽이에요. 점심은 맛있게 나오는데 사실 아직도 그 필리핀 특유의 치킨 냄새랑 튀김 가루 냄새 같은 거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한식을 제공해 주는데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은 달라요. 처음에는 저녁 안 먹고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코코라임 진짜 싸고 양도 많고 맛있는데 여기 꼭 가보세요. 2번 이상 가세요! 학교 식당에서의 저녁은 점심이랑 비슷해요! 근데 여기 학교 식당 좀 전반적으로 짠데 국은 맛있어요!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5층은 도미토리, 교실 다 있어요. 수업 듣기 위해 교통비 낼 필요 없어요. 다운타운으로 나가려면 FB타고 13페소 내셔야 됩니다. 10-15분 타고 가면 종점 나와요. 종점이 하버포인트 근처입니다! 종점에서 내리시면 돼요~ 택시타고 나가고 싶으면 가드분들께 택시 불러달라고 부탁하고 기다리면 와요! 콜비까지 해서 250페소입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26,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유심	14,720원 (640페소)	유심을 잘못 구매해서 생각했던 비용보다 크게 나왔어요.
티셔츠	13,800원 (600페소)	아이러브 수빅 베이 티셔츠 3장, 각 200페소.
기념품(스낵)	58,498.89원 (2,543.43페소)	제가 가족들 주려고 스낵을 정말 많이 샀어요. 25인치 캐리어를 거의 다 과자로 채웠었습니다.
교통비	17,043원 (741페소)	며칠을 제외하고 fb랑 택시타고 외출했었어요.

식비	187,864원 (8,168페소)	스타벅스, 파티, 외식
기타	약 110,000원	노래방, 북스토어, 선생님들 선물, 게임방, 클럽, 테라스 호텔, 생필품, 마사지, 공항비, 기부금 등
합계	1.127,925.89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주세요.

한국 돈에서 페소로 바꿔서 가지 마세요. 달러로 바꾼 다음에 현지에서 페소로 바꾸는 게 더 이득이에요. 첫날 티쳐들과 수빅 투어를 할 텐데 유심사는 거랑 환전하는 거 다 도와주실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학원 안에 조그마한 풀장도 있고 액티비티도 수영하는 게 꽤 많아요. 수영복 챙겨가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저는 상비약 제가 그냥 챙겨왔어요. 약 받으려면 오피스까지 가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약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챙겨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운동화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7월에는 우기라서 슬리퍼나 쪼리 신고 다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간혹 돈이 부족해서 카드를 긁거나 카드에서 돈을 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혹시 모르니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하나는 준비해서 오세요. 순천향대 학생증 카드는 해외에서 아마 사용이 안 될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미리 카드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동전지갑을 소유하고 있다면 들고 오는 게 좋아요. 동전 받는 일이 정말 많을 거예요!
멀티탭 하나 챙겨오는 거 추천해요! 제가 묵었던 방은 2개만 사용 가능해서 정말 1달 동안 불편했어요.
그리고 노트북 웬만하면 챙겨오세요. MMC 페스티벌을 위해 뮤직비디오 하나랑 커머셜 2개를 만들게 될 것인데 편집을 위해서는 노트북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스크팩을 자주 해서 한국에서 따로 챙겨왔는데 팩 자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한국에서 사오세요. 현지에 왓슨스도 있고 한국 로드샵도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비싸요. 그냥 10 플러스 10 하는 거 한국에서 사 가세요.
그리고 티쳐들이랑 헤어지기 전에 저는 선물들을 줬었는데요. 티쳐들 한국 화장품이나 물건 정말 좋아해요!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서 들고 가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옷 정말 많이 가지고 오지 마세요. 나중에 아이러브 수빅베이 티셔츠 2장 사서 계속 그것만 입고 다녔어요!
UP 투어는 교통체증 때문에 새벽 5시에 출발해서 밤 11-12시쯤에 어학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정말 버스에 앉아있는 시간이 긴데 다들 목 베개 현지에서 구매하시거나 챙겨가세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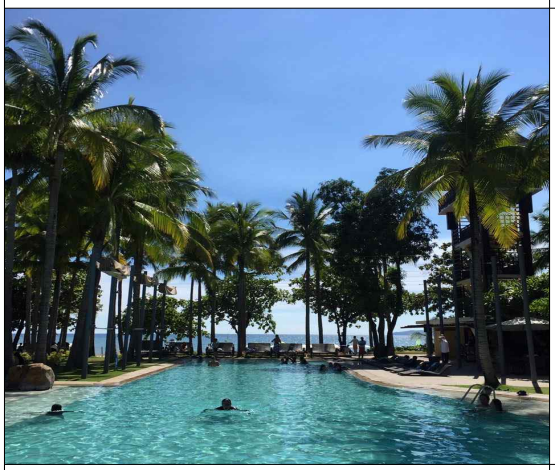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솔직히 지인분들이 다시 가고 싶다고 하고 추천도 많이 해줘서 큰 기대를 안고 왔었는데 기대만큼은 미치지 못했어요.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 만나고 좋은 추억 쌓고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액티비티는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4주라는 시간이 영어를 배우기에도 필리핀 문화를 경험하기에도 짧은 시간인 것을 이해하고 저희에게 최선을 다해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몸 상태나 피곤함 등을 생각해줬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참가 여부를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냥 다 가는 식으로 하더라구요. 웬만하면 선택제로 바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아원 봉사활동. 같이 온 사람들 모두 다 하는 것이 아니었고 애들 놀아주기에도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이 좀 들겠다 싶으면 다른 방으로 가야 됐었고 제대로 놀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픈 애들이 있는 방에 굳이 들어갔어야만 했나 싶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과 hang out하지 못한 게 제일 후회가 됩니다. 수업 끝나고 친구들과 같이 나갈 생각만 하고 선생님들께 같이 나가자고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ㅠㅠ
다들 기회가 되면 permission받고 선생님들이랑 행아웃 많이 하고 오세요!

다른 과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매일 선생님들과 영어로 대화를 하니 자신감도 생기고 스피킹 실력도 향상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서 계속 그립고 연락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어학원에 도착한 다음 날, 티쳐를 포함한 6명이 한 조가 되어서 수빅 투어를 했다. 마지막 목적지인 수빅 베이에서 티쳐와 조원들과 사진을 찍었다.		순천향대 학생들끼리 함께한 익스트림 에스프레소에서의 외식.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코코라임에서 저녁 식사. 2번 밖에 가지 않은 것을 이제와서 후회한다. 값도 싸고 양도 많고 정말 맛있다. 파인애플 밥, 비프 라이스 누들, 아도보?아보도? 추천!		자유시간이 주어진 몰 오브 아시아 앞에 있는 바닷가에서! 룸메들이랑 같이 사진 찍음. 마닐라 투어를 하면 방문할텐데 개인적으로 몰 안에서 노는 것보다 몰 앞에 있는 바다 근처에서 놀고 먹는 것을 추천함.
		
첫째 주 토요일에 리조트에서 액티비티 활동. 사진찍기 좋은 곳이다. 수영장 앞에는 바닷가도 있다.		필리핀 클락 공항에서 한국으로 가기 전에 순천향대 학생들과 함께. 필리핀에서 찍는 마지막 단체사진.